

한우정보 해외소식

제43호

2023.01.09.

해외 소식

- 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
- 22년도 미국산 쇠고기의 동아시아 수출, 최고조 기록
- 일본, 미국산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SG) 새 기준 적용

전 국 한 우 협 회

미국,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 시범 운용

-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USDA/AMS)¹⁾은 12월 7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육가공기업에 의한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보고 의무화와 USDA/AMS에 의한 공표를 규정하는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험적 운용에 관한 최종 규칙을 공표
- USDA/AMS는 금년 4월 이후, 본 규칙의 책정을 향해서 육우·쇠고기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 청취나 일반인 공청회 등을 실시해 왔으며, 본 규칙은 2023년 1월 6일부터 시행

[보고가 필요한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개요]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계약방법	서면 혹은 구두계약에 의한 특정기간 내의 육용우 구입계약 방법
계약개시일 및 종료일	육용우 구입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기준가격	조정, 증액, 감액을 적용하기 전의 온도채 지육중량 혹은 생체중량 100파운드당 가격
판매기준	구입하는 육용우의 기준
증액과 감액의 조건	계약기준 가격에서 증액 혹은 감액되는 조건
육용우 속성에 관한 조건	육용우의 품종, 거세우·미경산우 등의 속성에 관한 조건
운송조건	농장으로부터 소 도축·가공시설로의 육용우 수송에 관한 조건
용자, 손실분담, 이익분담 등 경제적 조건	소 도축·가공기업으로부터 육용우 생산자에 대한 용자, 손실 및 이익의 분배방법에 관한 조건
수량 규정	육용우 출하두수에 관한 조건
월간 육용우 구입두수	
전월 소 구입두수	보고월 전월의 계약에 의한 육용우 구입두수
당월 소 구입 예정두수	보고월의 계약에 따른 육용우 구입예정 최대 두수

자료 : USDA/ARS 'Cattle Contracts Library Pilot Program Final Rule'

1) USDA/AMS(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 미국 농무부의 농업마케팅국

□ 육용우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 최종 규칙 개요

○ 쇠고기 도축·육가공기업에 의한 계약정보의 보고

- 본 규칙에서는 최근 5년간 미국 내에서 도축된 육용우의 연간 평균 마릿수의 5% 이상을 취급한 쇠고기 도축·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육용우 생산자와의 계약정보 및 월간 육용우 구입 마릿수를 USDA/AM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USDA/AMS에 따르면 미국 내 쇠고기 도축·가공 시설의 약 85%가 보고 대상이 되며, 대상 쇠고기 도축·가공업체는 신규 계약 체결, 기존 계약 변경 및 폐지 후, 1영업일 이내에 USDA/AMS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음

○ USDA/AMS에 의한 계약정보의 공표

- 쇠고기 도축·가공기업으로부터의 계약정보 보고를 요청한 USDA/AMS는 농무장관의 지시하에 계약당사자를 포함한 개인정보나 기업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규칙에는 계약정보를 공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USDA/AMS에 의하면 이미 운용되고 있는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할 예정

○ 덧붙여 육돈 계약정보 공개제도(라이브러리)에서는 계약 기준 가격, 판매 기준, 증액·감액 조건 등의 계약 조건을 정리한 ‘계약 개요 리포트’와 향후 6개월간과 12개월간의 돼지고기 도축·가공 기업의 육돈 구입 예정 마릿수를 정리한 ‘월간 리포트’의 2종류에 의해 계약정보를 공표하고 있음

□ 전미육우생산자·우육협회(NCBA)²⁾는 본 규칙의 공표에 대해 “우리는 시장 투명성 향상을 위해 오랜 세월 노력해 왔으며 미 의회와 USDA가 육용우 생산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우계약 공개제도(라이브러리)의 시범 운용에 이르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힘

2) NCBA :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 미국의 소 축산업 및 소고기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축산업자와 도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적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소비자 수요를 증진하는 데 있다. 1898년에 창립된 미국축산협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소를 판매시에 한마리당 \$1씩 부과되는 판매세(Beef Checkoff)에 의해 재정을 충당

- 또 육용우 생산이 활발한 사우스다코타주 육우생산자협회(SDCA)³⁾도 “우리는 육우생산자나 육가공 업계에 대해 신규로 강제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는 항상 반대한다.”
- “그러나 양돈업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기능하고 있어, 육용우 계약공개제도(라이브러리)가 새로운 규제는 아니며 육용우 생산자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면서 일정한 이해를 보이고 있음

자료 : USDA,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22.12.28.)

3) SDCA : South Dakota Cattlemen'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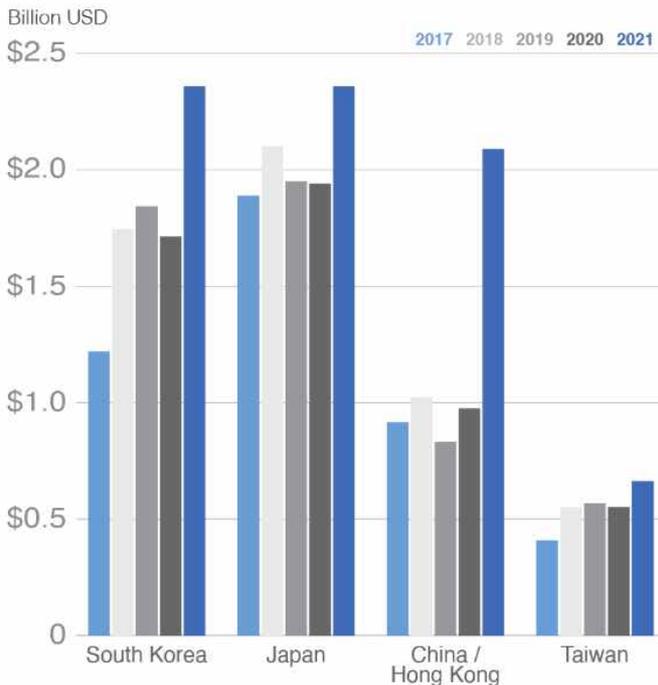
22년도 미국산 쇠고기의 동아시아 수출, 최고조 기록

-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산 쇠고기의 동아시아 수출이 2021년 실적을 초과하여 기록적인 속도로 늘어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망 문제, 경쟁적인 글로벌 쇠고기 시장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상반기 미국산 쇠고기의 동아시아 수출은 금액과 물량 모두 큰 폭 증가
- 동아시아의 비교적 견장한 중산층은 고품질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지지해왔으며, 발전된 전자상거래 소매 부문은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공급자들이 쇠고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유연한 길을 제공해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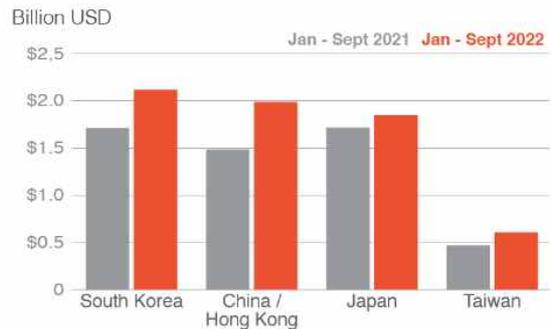
[미국산 쇠고기의 동아시아 수출 실적]

Beef Exports to East Asia Continue Record 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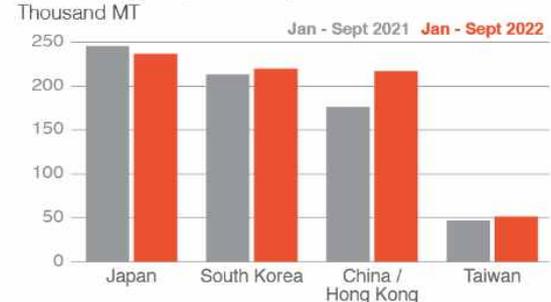
U.S. Beef Exports, 2017-2021



U.S. Beef Exports by Value



U.S. Beef Exports by Volume



Source: USDA-Foreign Agricultural Service, Global Agricultural Trade System (GATS) - BICO-HS10

- 동아시아는 미국 쇠고기 수출의 지역 시장 1위, 2022년 1~3분기 (1~9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일본, 중국·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로의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66억 달러로 지난해 수출액 54억 달러를 웃돌며 금액 기준으로 22% 증가
 - 물량 기준으로 수출은 6.4% 증가함, 최근 몇 달 동안 식품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양의 수출은 쇠고기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높은 가치분 소득을 가진 상대적으로 안정된 동아시아의 중산층이 증가하는 비용을 기꺼이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 : 2022년 1~3분기 수출액은 21억 달러를 돌파해 현재 속도로 연말까지 28억 달러를 예상
 - 2022년 수출 호조는 미국이 한국에 24억 달러 규모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출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1위 쇠고기 시장으로 올라선 2021년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10년 만에 뼈 없는 쇠고기(신선·냉장, 냉동 등)의 관세율은 10.6%로 낮아짐
 - 202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제품이 관세 제로 시대에 들어가고, 2027년부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G : 세이프가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됨

- 일본 : 2021년 미국은 일본에 24억 달러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출해 한국 다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음
 -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대일 수출은 지난 1년 동안 가치가 7.9% 증가했으며 출하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냉동 뼈 없는 쇠고기 수출은 56.0%, 물량은 27.0% 증가함, 2021년 미국산 쇠고기 수출로 세이프가드 관세⁴⁾가 발동되면서 30일 동안

4)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상순까지 수입 수량이, SG발동 기준수입량 242,000톤을 초과(242,229톤)함으로써, 2021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30일간 SG가 발동됨, 발동기간 동안 관세율은 냉장은 25.8%에서 38.5%로, 냉동은 34.7%에서 38.5%로 상향 적용되었음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됨

- 그러나 미국은 2022년 6월 일본과 쇠고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개정을 위한 미·일 무역협정을 체결, 이 새로운 협정은 쇠고기 수출 증가가 향후 몇 년 동안 세이프가드 관세를 다시 촉발할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미국 수출업체의 성공적인 시장 확대 노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과 홍콩 : 2021년 미국의 중국/홍콩 쇠고기 수출액이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

- 2022년 수출은 9월 30일까지 이미 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동안 34.1%가 증가한 수치
- 물량 기준 수출은 23.2% 증가한 수치, 미국과 호주가 두 개의 주요 공급국인 다른 동아시아 경제권의 경쟁과 달리, 중국/홍콩에서는 미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같은 여러 남미 공급국들과 경쟁하고 있음
 - 중국은 소매업에 공급하는 냉동 뼈 없는 쇠고기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남미 공급업체들이 가격과 물량 면에서 시장 점유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
- 주로 중국의 성장하는 호텔, 레스토랑 등 외식 부문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유무역협정을 유리하게 활용하면서, 최대 공급국으로 남아 있음

□ 대만 : 대만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2021년 기록적인 실적(6억 6,270만 달러) 이후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음

- 2022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28.7%, 물량 기준으로 10.7% 증가했음
- 2021~22년에 쇠고기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유리하며, 대만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다시 문을 여는 것도 호텔 및 식당 등 외식 부문에 유망한 신호

- 미래 전망 : 정책적 관점에서,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부는 동아시아의 쇠고기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물가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대만의 식료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
 - 대만의 쇠고기 수입 관세 한시적 인하, 한국의 제로 관세 쇠고기 수입(10만톤) 등 2022년 말까지 이어진 최근 정책은, 식품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이 미국 수출기업의 시장접근 기회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지난 몇 년 동안의 경제적 충격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불황이 동아시아의 쇠고기 수요를 약화시켰다는 강력한 지표는 없음
 - 미국산 냉장 쇠고기에 대한 공급망 혼란, 더 긴 배송 시간, 그리고 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임
 - 가장 성공적인 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소비 및 소매 동향을 반영하여 마케팅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임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port, USDA(22.12.27)

일본, 미국산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SG) 새 기준 적용

- 개정 미·일 무역협정이 23년 1월 1일 발효되고, 미국산 쇠고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SG)는 새로운 발동기준이 적용됨
 - 종래는 미국산 수입량이 연도별의 기준량을 넘으면 발동했지만, 향후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환태평양 제후 협정(TPP) 가맹 각국과 미국산의 합계의 수입량이, TPP로 정해진 기준량을 넘는 것도 조건에 추가되어, 발동하기 어렵게 됨
 - 일본에서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SG 재검토를 반영한 개정 미·일 무역협정안이 승인돼 양국 간 23년 1월 1일 발효에 합의
- 금년도는 ①미국산 단독의 수입량이 기준의 25만 1,680톤을 초과, ②미국산과 TPP 각국 산의 합계 수입량이 기준의 63만 7,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G가 발동됨
 - 발동 후에는 24.1%의 관세가 일정 기간 30%가 되는데, 12월 중순 기준 수입량은 ①이 기준의 70%, ②가 67%에 이르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새로운 SG는, TPP 교섭에서 미국에 대해 한 번 합의한 수준 이내로, “국내 산지에의 새로운 영향은 특별히 없다”(협상 소식통)는 입장
 - 한편, TPP 각국에 대한 SG의 발동기준은, TPP를 이탈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분도 포함한 채의 수준으로 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 재검토가 과제가 되고 있음
- 미·일협정의 보충문서에서는 SG가 발동했을 경우 ‘발동 수준을 보다 한층 높은 것’으로 하는 협의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음
 - 미·일 양 정부는 21년 3월의 SG 발동에 따라 재검토 협의를 계속해 22년 6월에 새로운 발동기준에 합의한 바 있음

자료 : 일본농업신문 (22.12.31.)

※ 미·일 쇠고기 SG개정 관련 ‘미 농무부 해외농업국 보도자료’

[원 문]

USTR Tai Signs Updated Beef Tariff Agreement with Japan

June 2, 2022 | News Release FAS Press

WASHINGTON -- Ambassador Katherine Tai,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oday signed a new agreement with Japan’s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Koji Tomita to revise the beef safeguard mechanism under the U.S.-Japan Trade Agreement (USJTA). This updated agreement will amend the beef safeguard trigger level under the USJTA with a new, three-trigger safeguard mechanism. The amendment will allow U.S. beef exporters to more reliably meet Japan’s growing demand for high-quality beef, providing more predictability and reducing the probability that safeguard duties would be imposed on U.S. beef, as occurred in early 2021.

“This agreement ensures that American farmers and ranchers can continue to meet Japan’s growing demand for high-quality U.S. beef while increasing market opportunities in a vital market,” said Ambassador Katherine Tai. “I want to thank Secretary of Agriculture Tom Vilsack and Ambassador Rahm Emanuel for helping to get this agreement done.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demonstrating our commitment to working together on shared priorities to achieve concrete, economically meaningful results for our people.”

“This agreement demonstrates how strong allies can work together to benefit each other – and it’s another example of ho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strengthening trade ties and creating new and better markets for our agricultural producers and exporters,” said Secretary of Agriculture Tom Vilsack. “Japan is already the United States’ second-largest beef export market, and thanks to the work of Ambassador Tai and Ambassador Emanuel our producers and exporters have greater opportunities and greater certainty that their products will not be subject to higher tariffs.”

“This deal is a win for America’s farmers and ranchers, and for Japan’s consumers,” said Ambassador Rahm Emanuel. “It allows us to build our share of a beef export market that was worth \$2.4 billion in 2021, and since this

agreement was announced, we've seen Japanese buyers boost their purchases of high-quality American beef by 30% over last year.”

The agreement includes a new three-trigger mechanism whereby three criteria must be met in order for Japan to implement the safeguard and impose a temporary, higher tariff on U.S. beef. The three criteria are:

- 1.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must exceed the original beef safeguard trigger level under the U.S.-Japan Trade Agreement;
- 2.The aggregate volume of beef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original signatories of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must exceed the CPTPP beef safeguard; and
- 3.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must exceed the total amount of beef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previous year. This third trigger will be in effect until 2027.

Following signature, both countries will follow their respective domestic procedures in order for the updated agreement to enter into force

In 2021, the United States was the top beef exporting country in the world, with global sales of beef and beef products valued at over \$10 billion. Exports of U.S. beef to Japan totaled almost \$2.4 billion in 2021, with Japan representing the United States' second largest beef export market.

[번역문]

USTR 타이, 일본과 쇠고기 관세 협정 갱신

2022년 6월 2일

- 워싱턴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사는 오늘 토미타 고지 주미 일본 대사와 미·일 무역협정(USJTA)에 따른 쇠고기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개정하는 새로운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협정은 USJTA에 따

른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을 수정할 것이다. 새로운 3가지 트리거 SG 메커니즘이 포함된 미·일 무역협정 개정안은 미국산 쇠고기 수출국들이 일본의 고품질 쇠고기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보다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 2021년 초에 발생한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더 많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 캐서린 타이 대사는 “이 협정은 미국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중요한 시장에서 시장 기회를 증가시키면서 고품질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증가하는 수요를 계속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협정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을 준 톰 빌삭 농림부 장관과 램 에마누엘 대사에 감사하고 싶다. 미국과 일본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톰 빌삭 농림부 장관은 “이번 합의는 동맹국들이 서로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며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어떻게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을 위한 새롭고 더 나은 시장을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이며, 타이 대사와 이매뉴엘 대사의 노력 덕분에 우리 생산자들과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는 더 큰 기회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램 에마누엘 대사(주일 미국대사)는 “이번 합의는 미국의 농부들과 목장주들, 그리고 일본의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24억 달러 규모의 쇠고기 수출 시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됐고, 이 협정이 발표된 이후 일본 바이어들이 고품질 미국산 쇠고기 구매를 지난해보다 30% 늘렸다”고 말했다.
- 이 협정에는 일본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일시적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새로운 3가지 트리거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미·일 무역협정에 따라 원래의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수준을 초과해야 한다.
 - (2) 미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원서명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의 총량은 CPTPP 쇠고기 세이프가드를 초과해야 한다.
 - (3)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도 동안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총량을 초과해야 한다. 이 세 번째 트리거는 2027년까지 유효합니다.
- 서명에 따라 양국은 업데이트된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 각각의 국내 절차를 따를 것이다.
 - 2021년에 미국은 전 세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전 세계 매출이 1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고의 쇠고기 수출국이었다. 2021년에 일본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은 총 24억 달러에 달하며, 일본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쇠고기 수출 시장을 대표한다.

News Release, USDA FAS Press(22.6.2)